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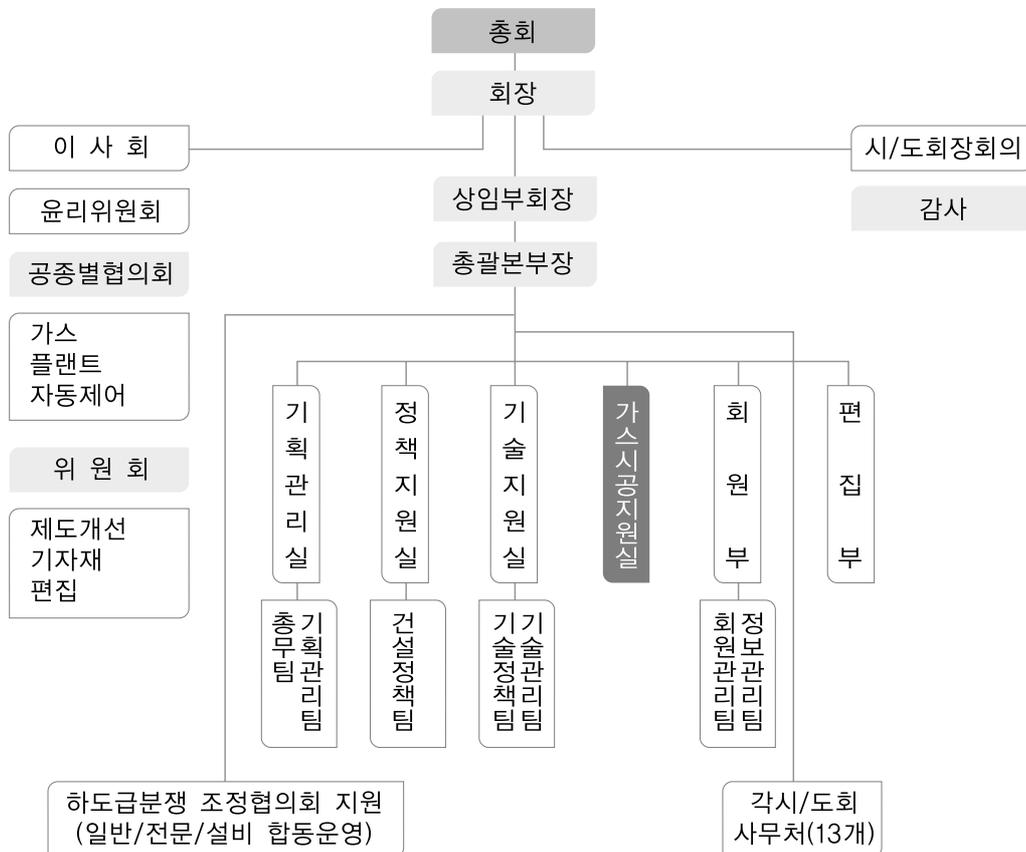


가스시공업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경영환경 개선 업무 담당하는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지원실

대한설비건설협회 본회는 건설진흥사업 외에 기술·가스진흥사업, 회원봉사 및 조사사업, 정보화 사업, 기획·관리사업, 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활동을 함으로써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12월호부터 전국 13개 시·도회를 대표하여 설비건설업계의 발전 및 위상강화, 회원사의 권익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는 본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가스시공업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스시공지원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직도





□ 가스시공지원실의 주요기능과 역할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지원실은 가스시공업계의 경영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규정한 시공관련제도 및 관련고시와 시설분야 검사업무처리지침 등에 대해 시공현장 실정에 맞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한 행위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회의운영

가스시설시공업 1종 회원사로 구성된 가스설비공사협의회를 연 3회 이상 개최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과 가스시공업계의 발전방안 및 당면과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들이 최대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스시공업 회원사 소속 임원들로 구성된 가스시공실무연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살아있는 정보수집 및 협의를 통해 회원사와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가스시공지원실은 가스시공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업무편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관련단체와의 협조

가스시공지원실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등 정부 및 관련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세미나 또는

강습회에 참석하여 가스시공관련 기술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회원사에 안내함으로써 회원사가 최신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지식경제부가 매년 개최하는 ‘한국가스안전대상의 날’에 가스시공업계와 협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토록 함으로써 회원사의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의 과다한 규정으로 인해 가스시공업계는 물론 가스를 사용코자 하는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복잡한 행정절차와 공정 지연에 따른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가스시공지원실에서는 정부에 이를 개정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공동주택 공사계획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 폐지 △시공감리 제외대상 확대 △전공정 시공감리에서 일부공정 시공감리로 시공감리방법 개정 △가정세대 분기관을 용접접합에서 나사접합으로도 가능토록 변경 △배관이음매와 굴뚝과의 이격거리를 30cm에서 15cm로 완화 △전국 어느 곳에서나 기술검토를 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회원사의 권익보호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전안전점검 등과 관련한 부당행위 방지

가스시공지원실에서는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과다한 종류의 서류를 가스시공자에게 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도시가스사 투자분이 아닌 가스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의 공급전 안전점검기준(자체시방

기준)을 법령 및 코드기준과 일부 상이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APT 등 공급전 안전점검시 가스계량기 및 보일러 관련번호를 제출토록 하는 문제점 등 도시가스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요구하는 부당한 사항들을 시정해 줄 것을 지식경제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그 결과 지식경제부에서는 시공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23종에서 11종으로 간소화하였으며, 공급전 안전점검 기준 및 제출서류 양식을 도시가스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였다. 또한 법령 및 코드기준과 상충되는 과도한 공급전 안전점검기준을 지난 2009년 12월 31일까지 정비토록 하였으며, 가스계량기 및 보일러 관리번호 제출 사항을 폐지하였다.

이밖에도 가스시공지원실에서는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계속해서 시행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 일반업무

가스시공지원실에서는 대한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에 가스관련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또는 상세기준 등 질의 회신 란을 운영 중이며 회원사와의 전화상담을 통해 가스시공관련 민원을 바로바로 해결하고 있다.

또한 가스관련법령의 재·개정 내용을 안내(홈페이지 및 우편발송)하고 있으며 매년 가스시공관련 책자를 인쇄하여 회원사에 배포하고 있다.

가스시공지원실의 이용권 실장과 이형훈 직원은 대외적인 가스 관련 회의 및 간담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회원사의 권익대변에 힘쓰고 있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 수시로 접수되는 회원사의 민원에 최대한 귀 기울이고 이의 해결을 통해 가스시공업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놀라운 발견과 위대한 발명

뇌의 무게

성인 남자의 뇌 무게는 보통 1.4kg, 성인 여자는 1.2kg 정도로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개 큰 차이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학설에 따르면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학자의 뇌는 보통 사람보다 조금 무거웠다고 한다. 그렇다고 남자가 여자보다 뇌의 무게가 무겁다고 해서 더 우수한 뇌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동물의 경우 코끼리의 뇌는 4~5kg이나 되며 고래의 뇌는 8~10kg이나 된다. 뇌의 크기가 몸집에 비례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코끼리나 고래의 뇌는 사람보다 훨씬 무겁지만, 사람보다 영리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쥐의 뇌는 체중의 28분의 1이다. 인간이 38분의 1이니 까 쥐가 인간보다 더 문명한 지구를 만들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허와 등의 감각

사람의 몸에서 가장 감각이 발달된 곳은 허끝이다. 1mm 사이로 벌어진 2개의 볼록한 점을 헛바닥은 정확하게 2개로 알아맞히지만 손가락은 1개로 느낀다. 손가락이 2개로 알아맞히려면 2mm 이상의 거리로 벌어져야 한다.

허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을 설고유근이라고 하는데 허의 섬세한 운동을 관장하고 있다. 설고유근은 종주, 횡주, 수직으로 달리는 근섬유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대로 사람의 몸에서 가장 감각이 둔한 곳은 등이다. 발바닥은 2cm, 엉덩이는 불과1cm 정도 벌어진 2개의 점을 식별해 내지만 등은 사이가 5cm나 벌어진 2개의 점도 1개로 느낄 정도로 감각이 둔하다.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중에서